

고진영 'LPGA 천하통일' 이룰까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美서 22일 개막

상금 150만달러 역대 최고
대회 끝나야 상금왕 결정
상금왕·평균타수 1위 뎀
개인 기록 전부분 석권
이정은·김효주 추격 관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9시즌 마지막 대회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500만달러)이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056야드)에서 개막한다.

2019시즌 선수들의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CME 글로벌 레이스 상위 60명만 출전하는 이 대회는 역대 여자골프 대회 사상 가장 많은 우승 상금 150만달러가 걸려 있다.

총상금 규모로는 올해 US여자오픈이 550만달러로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보다 많았지만 우승 상금은 100만달러였다.

지난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은 총상금 250만달러, 우승 상금 50만달러였는데 올해 총상금은 2배, 우승 상금은 3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서 올해 LPGA 투어 상금 1위는 이 대회가 끝나야 정해지게 됐다.

현재 고진영이 271만4281달러로 상금 1위에 올라 있으나 2위 이정은이 199만2490달러로 추격 중이다.

산술적으로는 현재 상금 순위 10위 다니엘 강(미국)도 124만 달러로 고진영과 150만달러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미 2019시즌 올해의 선수를 확정된 고진영은 이번 최종전을 통해 상금과 CME 글로벌

고진영 LPGA 부문별 주요 기록

총상금		1 세계 랭킹	
1 고진영	271.4 만달러	1 고진영	
2 이정은 6	199.2 만달러	2 박성현	
3 박성현	153.0 만달러	3 넬리 코다	
CME 글로벌 레이스		평균 타수	
1 고진영	4,148 포인트	1 고진영	69,052
2 브룩 헨더슨	2,907 포인트	2 김효주	69,361
3 이민지	2,870 포인트	3 박성현	69,507
올해의 선수		그린 적중률	
1 고진영	241 포인트	1 고진영	79.1%
2 이정은 6	123 포인트	2 넬리 코다	76.8%
3 넬리 코다	117 포인트	3 류위	76.3%



레이스, 평균 타수 1위까지 노린다.

평균 타수는 고진영이 69.052타로 1위, 2위는 69.361타의 김효주인데 이번 대회에서 김효주가 고진영과 25타 정도 차이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역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일 고진영이 이번 대회를 통해 상금, 평균 타수 부문 1위를 확정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전관왕을 달성한다.

고진영은 이미 올해의 선수를 확정했고, 한 시즌 메이저 성적을 토대로 주는 안니카 어워드 수상도 결정됐다. 여기에 세계 랭킹 1위, CME 글로벌 레이스 1위까지 더하면 사실상 개인 기록 전 부분을 석권하게 된다.

세계 랭킹 1위, 올해의 선수,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평균 타수 1위, 상금 1위, CME 글로벌

레이스 1위를 휩쓸 것은 지난해 에리아 쩌타 누간(태국)이 유일하다.

한국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사례는 2011년 박희영, 2012년 최나연이 있다. 2014년부터 제정된 CNE 글로벌 레이스에서 한국 선수가 시즌을 1위로 마친 적은 아직 없다.

고진영과 이정은, 상금 3위부터 5위인 박성현, 브룩 헨더슨(캐나다), 이민지(호주)까지는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시즌 상금 300만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LPGA 투어에서 시즌 상금 300만달러는 2007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역대 한국 선수들의 LPGA 투어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인 15승(2015·2017년)과 동률이 된다. /연합뉴스



펠리페, 징계에 물 건너간 '3관왕'

한국축구연맹, 개인상 후보 선정
지난 9월 물병 건어차 700만원 징계
MVP·베스트 11 후보서 제외
광주 FC 윤평국·윌리안 등 수상 도전

광주FC 펠리페의 '3관왕' 꿈이 징계로 무산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하나원큐 K리그 2019 대상 시상식' 개인상 후보선정위원회를 열어 올 시즌 최우수감독상, 최우수선수상(MVP), 영플레이어상, 베스트11 후보를 선정, 발표했다.

후보선정위원회는 각 구단이 제출한 부문별 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각종 기록 지표와 활약상을 고려, 4배수로 개인상 후보자를 압축했다.

그러나 올 시즌 19골로 K리그2 득점왕을 차지한 '우승 주역' 펠리페와 K리그1 선두 팀 울산현대 김도훈 감독은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 강화된 개인상 시상 규정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1월 열린 제6차 이사회에서는 '시즌 중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5경기 이상 출장정지 또는 600만원 이상 벌과금의 중징계를 받은 선수와 감독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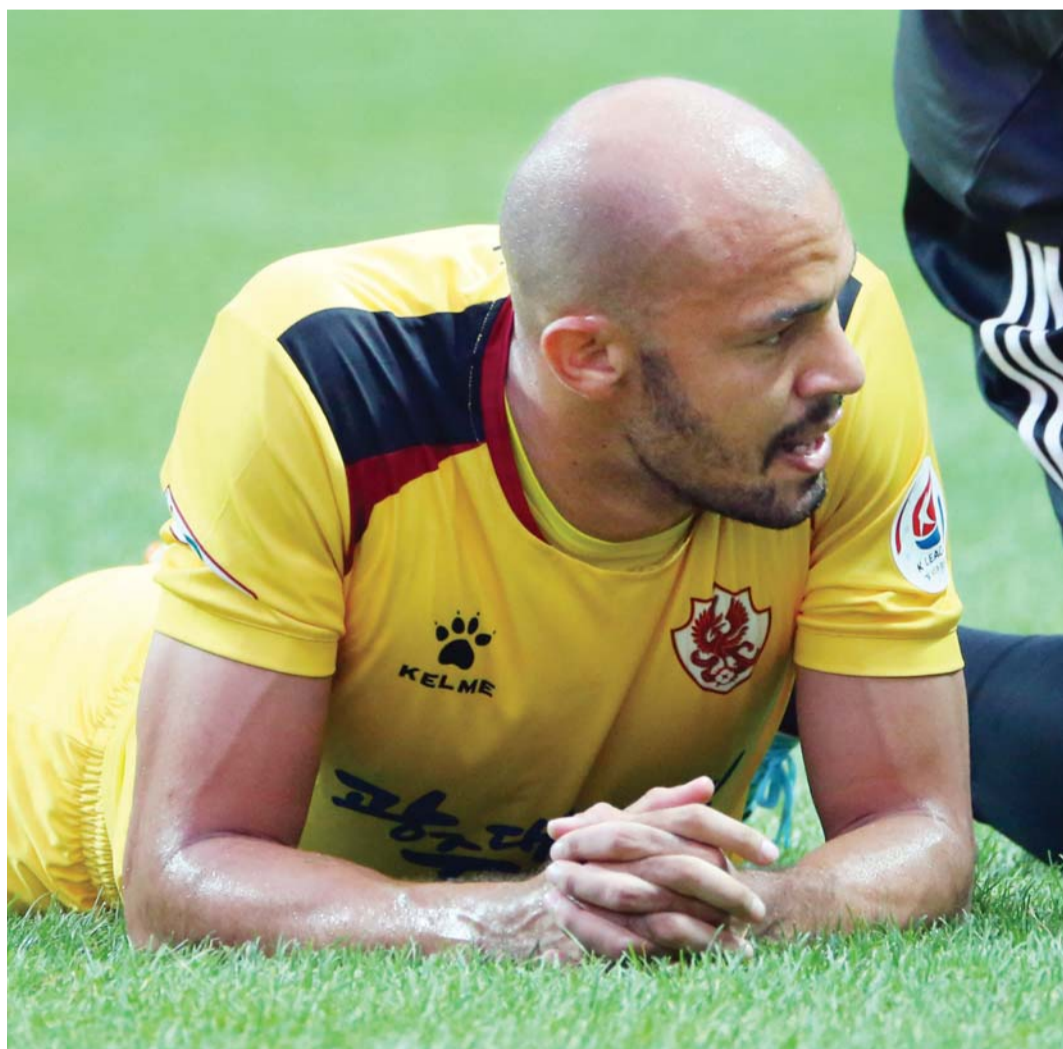
펠리페는 지난 9월 26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판정 항의로 경고를 받은 뒤, 물병을 던져차고 주먹으로 벤치를 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하며 퇴장과 함께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김도훈 감독은 지난 8월 대구FC와 정규리그 25라운드에서 주심을 상대로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했고, 3경기 출전 정지에 1000만원의 제재금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K리그2 득점왕과 K리그1 선두 감독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펠리페 대신 '철벽 수비'로 광주의 우승을 이끈 아술마토프가 MVP후보로 이동준(부산), 조규성(안양), 치승(수원FC)과 대결을 하게 됐다.

K리그2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박진섭 감독의 수상이 유력시 되는 감독상 부문에서는 김형열(안



양), 송선호(부천), 조덕재(부산)감독이 후보가 됐다.

광주에서는 윤평국(GK), 아술마토프·이옴(DF), 최준혁·두현석(MF), 윌리안(FW) 등이 수상을 노린다. 전남드래곤즈에서는 최효진(DF), 김영욱·한찬희(MF), 정재희(FW)가 후보가 됐다.

규정에 따른 조치지만 이번 결과에 아쉬움은 남는다. 후보 발표 전까지 연맹과 각 구단들은 해당 규정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규정이 2019시즌 대회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탓이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얼마 전 각 구단에 내려온 후보자 추천 공문에도 해당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광주는 당연히 MVP 후보 자리에 펠리페의 이름을 적어냈다. 시즌이 끝난 뒤 시상식을 준비하며 귀국을 미뤘던 펠리페도 뒤늦게 후보 제외 사실을 알고 큰 실망감을 보였다.

한편 최종 수상자는 21일부터 12월 1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각 구단 주장(30%), 감독(30%), 미디어(40%) 투표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내달 2일 서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최혜진, KLPGA 여왕 등극

올 시즌 5승 ... 대상·상금왕·최저타수·다승왕 휩쓸어

최혜진(20)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상과 상금왕, 최저타수상, 다승왕을 휩쓸며 2019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었다.

최혜진은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4개 트로피를 모두 가져갔다. 4개 타이틀 독식은 2017년 이정은(23) 이후 2년 만이다.

지난해 대상과 신인왕을 함께 거머쥐었던 최혜진은 2년차인 올해도 발군의 기량을 뽐내며 국내 여자골프 최강자로 우뚝 섰다.

4월 KLPGA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6월 S-OIL 챔피언십, 5월 맥콜-용평리조트 오픈, 11월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까지 시즌 최다승에 해당하는 5승을 거뒀다.

최혜진은 상금 12억716만원으로 막판까지 뒤쫓은 장하나(11억5772만원)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고, 대상 포인트에서는 564점으로 2위 박민지(484점)를 큰 격차로 제치고 2연패를 달성했다. 평균 타수는 70.4576타로 장하나(70.5194타)



의 추격을 뿌리쳤다.

올해 신인왕 레이스에서는 조아연(19)이 가장 많은 2780점을 쌓아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골퍼와 팬, 화해의 포옹

디오픈 출전권 걸린 경기...매슈스 경기 순간 팬 소리 질러 퍼트 빛나가

지난 1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자키 클럽에서는 메이저골프대회 브리티시오픈(디오픈) 출전권이 걸린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운영하는 라틴아메리카 투어 114 비자오픈 마지막 라운드 우승컵의 향방은 리카르도 셀리아(콜롬비아)와 브랜던 매슈스(미국)가 벌이는 2인 연장전으로 좁혀졌다.

셀리아가 9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어 기선을 잡았지만, 매슈스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2.5m 거리의 퍼트만 성공하면 승부를 다음 연장전으로 끌

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슈스가 퍼트하려고 퍼터를 뒤로 빼는 순간, 갤러리 중 한명이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란 매슈스의 퍼트는 빛나갔고, 그렇게 우승자에게 주는 브리티시오픈 출전권은 날아가 버렸다.

이 대회 관계자는 "소리를 지른 그 사람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다운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긴장했을 때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매슈스는 관계자에게 그 사람을 데려와 달라고 했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사인을 한 장갑을 줬다. /연합뉴스